

32. 지못미 자광벼, 마지막 토종벼의 이삭 한 터럭

김포는 비행기를 타려 간 것 말고는 초행길이었다. 내 기억 속의 작은 단서가 남아 있는 김포는 어릴 때였다.

우리 마을 집성촌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무렵이었다. 자식이 문전옥답을 팔아 김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을 거두자 부모를 모셔가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웬일인지 자주 고향을 찾았다. 그런데 그분의 접두어는 “내가 사는 김포에는”라는 말이 늘 붙어 다녔다. 주로 자랑한다고 하는 이야기했지만, 그 속내를 눈치챈 사람들의 편안에 말꼬리를 흐리곤 했다. ‘아 이 사람아! 그러면 내려와!’ 그의 눈에는 늘 진하고 되직한 눈물이 놀려있었고, 그의 말속에는 견디기 힘든 그리움의 역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농부들은 가끔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역설로 이야기한다.

- 난 아녀. 할 말이 없어!

퉁명스러운 부정이었다. 김포에서 가장 늦게까지 자광벼를 심었다는 권 선생님과의 연결은 꽤 힘들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렵게 통화했지만, 자광벼 심었던 권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하자 단칼에 자광벼를 모른다고 잡아떼셨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그런 퉁명스러운 부정이었다.

무조건 김포로 향했다. 이미 그분이 이미 아니라고 발뺌도 하고, 지금 자광벼는 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찾아뵙고 싶었다. 그 퉁명스러운 부정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나의 감정선을 건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지켜오던 벼를 놓은 까닭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다.

토종에 관한 관심이 커지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토종 벼를 심는 분들이 많다.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심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 받아 새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토종 벼를 지켜온 분들이라기보다는 토종 벼를 찾아내 선보이는 분들이라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토종 벼 중에 「벼들벼」가 슬로푸드협회의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됐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켜온 벼가 아니라 찾아낸 벼라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긴 시간을 달려 전화 속에서 들린 퉁명스러움에 대비해서 한껏 몸을 낮추고 그분을 찾았다.

- 잘못 찾아왔다니까. 할 말도 없어!

할 말이 많다는 거라는 것을 이내 눈치챘다. 내외분이 마당까지 나와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환대에 당황할 정도였다. 미리 전화는 했을 때 할 말 없다며 잡아뗐지만, 생면부지의 우리를 만나더니 약수한 손의 방향이 별써 2층 거실로 향했으니 그 말은 할 말 많다는 역설인 것이다.

무엇을 물을지 일고나 있었다는 듯이 긴 시간을 혼자 이야기 해주셨고, 나는 미리 준비해간 질문지는 펴보지도 못했다. 빠트리거나 부족한 것은 안주인께서 보충해주었고, 탁자에 수북이 쌓인 그들이 모은 자료스크랩은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도 남았다.

자광벼가 그분 집으로 들어온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이 자광벼의 주산지는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들여와서 심었다는 곳인 통진면 들미, 밀다리 혹은 들미다리로 불리는 곳이었다. 권 선생의 선조들께서도 그곳에서 벼를 가져와 심었는데, 이곳의 쌀이 묵어 특이하기도 하지만, 밥맛이 좋아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리게 됐다고 한다. 그러자 점차 마을로 번지기 시작하여 이곳 하성 석탄이 밀다리 보다 더 오랜 시간

심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광벼의 주산지는 원래 통진 밀다리였다. 워낙 이곳 쌀이 유명하여 민요에도 불려졌을 정도니 꽤 유명했던 모양이다. 그중에 전원사시가의 가을 타작 소리 한 가락 들어보면 이렇다.

뜰나무에 바람 소리 아침에 살펴보니 창밖에 오동잎이 금정에 떨어졌다 소상강 외기러기 해천에 높이 뜨니 어느 곳 손님내는 귀장이 바빴는고 벽간의 귀뚜라미 베 짜라 재촉하니 어느 곳 지어미는 게으른 잠 깨었는고 밤사이 서리방에 백곡이 익었거든 청약립 녹사의로 뜰 앞에 나아가니 산야에 황운이요 곳곳이 타작이라 희희한 농부들은 황계백주 손에 들고 소매를 이끌어서 궐하에 이르기를 성대태평하여 시화세풍하니 이것이 뉘 덕인고 우리임금 덕이로다 토고를 두드리며 격양가 부르시니 강구의 늙은인가 도당씨 백성인가 삼대의 성화를 오늘날 다시 본다 구준에 대취하니 여공에 불들려서 먼데 타작 먼저하고 가까운데 나중하니 밀다리 좋은 벼와 정금벼 보리며 사발벼 대추벼가 정실한 곡품이오 낭려함 입미로다 서직 두태 다 거두고 화맥 숙맥 다들이니 즐용 같은 내 곡식을 어디다가 다 쌓으리 천창만상 넣고남아 뜰앞에 노적하고 함포고복하여 태평가 부르리라 찰기장 좋은 술을 치광에 가득 부어 공언이 어디런고 만수를 부르리라 전주의 일을 맞고 일신이 한가하니 앞내에 고기 낚아 양친이나 하오리라.

또한 경기민요 풍등가에도 ‘김포통진 밀다리’로 등장는데, 이 밀다리가 지금의 통진면 동을산리 들미다. 들미는 대개가 들뫼에서 왔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달뫼에서 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달뫼로 보는 경우는 들미를 월곶 부근이라 이야기하고, 들뫼로 보는 경우에는 들미를 지금의 통진면 동을산리 들미로 보기도 한다.

지금도 동을산리에 가면 기러기 한 마리가 너른 들에 내려앉아 목을 길게 늘어 빼고 곡식을 쪼는 모습의 산이 어렴풋이 남아 있다. 낮은 산이지만, 넓은 평야에 둘출하여 드러났으니 둘출한 산이라는 이름의 둘뫼가 됐고, 다시 둘미>들미’로 마을 이름이 바뀌어 나갔다고 봄 것이다. 아마 정식 마을 이름은 한자로 밀다리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자광미를 밀다리쌀이라고 불렸다.

자광벼가 김포 통진평야에 2000여 년 동안 쌀의 주산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통진평야는 김포의 네 평야 중의 하나다. 김포에는 곳과 곳으로 이어지며 펼쳐진 월곶평야, 군무의 기러기 떼가 장관인 낙안 홍도평야, 들 중에는 바다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하여 붙여진 후평리평야, 그리고 통진평야 등 바다와 강물이 만나 이뤄낸 평야가 네 곳이 있다. ‘강인 듯 강이 아닌 강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의 평야이다.

이 네 평야는 멀리 소백산에서 흘러온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다시 한강이 되어 조선역사의 최악의 치욕을 안고 있는 강화해협을 거쳐 바다로 가고, 바닷물은 한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가 임진강과 한강으로 갈라져 오르내리며 곳곳에 평야를 만들었다. 그중에도 통진평야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 통진면 가현리 일대 이탄층에서 발굴된 탄화미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벼를 재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벼가 도입되면서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지금부터 5000년 전이라 하니, 우리나라에 벼가 들어온 시기를 어름 잡아 2000년 전으로 봐도 이때부터 심기 시작했던 수많은 벼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바로 자광벼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벼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밀다리 쌀도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라 토종 쌀은 다른 토종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면서 없어진다. 특히 이곳의 토종벼는 일제 치하에서 인공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배후습지가 모두 전답으로 바뀌면서 더더욱 쌀 수탈을 가속화된다. 이때 쌀 증산을 위한 일본 다수확 품종이 들어오고 토종 벼의 1차 소멸의 단계를 겪는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광벼는 이승만의 밥상에도 오르면서 근근이 지켜오다가 2차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 바로 쌀 증산의 혁혁한 공을 세운 통일벼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없어지게 된다.

그래도 권 선생의 아버지께서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이라는 자부심과 조상들께서 심어온 벼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키게 된다. 특히 자광벼는 다른 토종 벼도 마찬가지지만, 비옥한 토질을 원하지만, 화학비료나 다른 비료를 줄 경우 수확할 벼가 없을 정도로 키도 크고 도복이 잘 돼서 다수확을 위한 신농법에는 심기 어려운 종자였다. 이웃 논에서 비료 준 물이라도 터놓으면 웃자라서 무름병에 도열병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신농법에 취해 자광벼를 종자 방에서 내놓기 시작했을 때도 붙잡고 있던 자광벼였다. 500여 평의 고집이었다. 신품종의 회오리 속에서도 500여 평의 고집은 계속되었다. 희귀한 쌀에 대한 호기심으로 판로도 적당했고, 그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면적으로도 적당했다. 한 마지막에 두 섬 정도 나왔다 하니 쌀 다섯 가마 정도는 생산할 수 있었다. 물론 한 마지막에 너댓 섬이 나오는 신품종하고는 그 수확이 반도 안 됐다.

한때는 인기도 있었다. 왜정 때는 그렇다 치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진상했다. 박정희 정권 때에는 경기도 지사가 선물하기 위해 해마다 꼭 대여섯 가마씩 가져가곤 했으니 그때가 전성기였다 했다. 그동안 지켜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을 중심으로 몇몇 가호가 자광벼를 심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재배가 까다롭고 힘들어 마을 사람들 하나둘씩 자광벼를 포기했고, 급기야는 권 선생 혼자 남게 되었다. 그만 심을까 고민했지만, 200년의 고민이었기에 쉽게 결정 내리지 않고 미루고 있을 때 그의 고뇌를 없애줄 일이 벌어진다.

그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이 벼가 세상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세상이 자광벼에 주목하자 농업지도소에서는 종자 외출을 금지했고, 김포 특산품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작됐다. 영농조합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기꺼이 종자 방을 열었다. 외롭지 않았다. 이제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취재가 열을 올렸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폭은 사실 그가 스스로 판매와 생산을 조절하며 심던 500평이 전부였다. 알은 잘았지만, 한 알 한 알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향은 구수하고, 맛은 달지근했다. 차지되 찐득대지 않는 경쾌한 찰기가 입안에 쩍쩍 붙었다고 품평 문구를 넣었으나,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를 개발케 한 뒤에 시식품평회를 할 때 누군가가 유일하게 ‘맞있다’라고 적은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

소비자들이 찾지 않자 모였던 사람들이 자광벼를 쉽게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이미 늙어버렸고, 몸은 성치 않아 빈 종자 방에 다시 채울 수 없었다.

이렇게 유일하게 지켜졌던 토종벼가 사라지게 된다.

- 그때 없어지길 잘했지 뭐. 안 그랬으면 내가 버렸어야 했잖아, 이젠 가!

그는 가라더니 또 마당까지 배웅하였다. 못내 아쉬운지 광을 뒤지고 다락을 찾아보더니 두어

되박을 챙겨 주신다. 처음 전화할 때 들렸던 통명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박물관에 말도 기록해주나? 우리가 그래도 지킬려고 했었다는 것만은 기록해줘.

- 나중에 자광 쌀 가지고 한 번 올께요.

- 그럼 우리야 고맙지. 지켜준다니 고맙지. 난 미안하고….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까짓 거 뭐러 찾어 라는 통명스런 말투 속에는 또한 그리움의 역설이 배여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역설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뻔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내 알아들었다.

그건 미안함이었다. 자광벼를 지키지 못함이 미안했고, 조상이 하던 일을 지키지 못함이 미안 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짓지 못해 더 이상 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다. 뭐, 혼자 미안할 일은 아니었다만 그는 그랬던 사람이었다.

자강벼를 보면 지금의 토종 열풍의 앞날을 보는 듯해서 또한 씁쓸하다.

토종을 지키는 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고집과 신념이어야 하는 데….